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근처 소상공인이 빈 식당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정민 기자)

라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상인들은 이번 정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자를 메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 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수도세를 비롯한 세금을 포함하면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생긴 꼴”이라며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힘든 상황은 맹한가지다”고 밝혔다.

회기동과 서천동 지역사회에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구와 서 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우리학 교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은 협업을 통해 회기동 상인을 위한 ‘코로나19 위기대응자금 신용보증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 지역상생팀 책임매니저 김 문자 씨는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이상 지속한 회기동 상인이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를 거쳐 한 달 내로 지원 금액을 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출금리가 0.73-1.03%로 시중보다 낮아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권성우 지점장은 “신용보증 지원, 폐업예정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폐업한 가게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권 지점장은 “대부분 점포 유지를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까지 지원금을 가게 시설을 개선하고 신메뉴 개발을 위해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는 종업원 급여, 임차료 지급, 세금납부 등 현상 유지를 위한 신청이 많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점포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찾은 서울캠 근처 점포들이 하나같이 “동대문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만큼 일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꿈 지점장은 “회기동 대로변

에 현수막을 걸고 경희마을 상인회
밴드를 통해서 홍보했다”고 말했
다. 이어 “사실 여건이 된다면 방문
해서 홍보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이 많아서 모르는 상인
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
보방식에 학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국제캠 앞 서천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우리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앞서 '2020 경기도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의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맞춤식 상점 쿠폰 및 상권 굿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본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서천동 상인회와 연계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 향한 골목상인들의 목소리, “지금까지 찾아준 학생들 고마워”

골목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에 신경 쓰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 외에는 없다”며 “하루빨리 경희대가 대면 수업으로 바뀌기를 기다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방문을 종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것이다. 상인들은 캠퍼스의 위치나 업종과는 상관없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점포를 찾아준 학생들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들 역시 경희대 골목상권을 응원하고 있다. 장혜린 (한의예 2019) 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취방을 빼다 보니 학교 근처 자주 가던 점포도 못 가게 되었다”며 “우리를 맞이하던 상인들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골목상권의 분위기가 그립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10월 5일부터 대면 수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학생들 뜻지않게 대면 수업을 기다린 경희대 앞 골목상권이 이를 계기로 한숨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 하지만 학교에 상주하는 학생들이 사라지자 매출도 급감했다. E 씨는 “고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으니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혀嬖한 우울을 보여다.

또 다른 집합 금지 구역인 PC방도 마찬가지다. PC방에 붙어있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흡연실 이용 금지’, ‘음식물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한 칸씩 띄어 앉기’ 등의 안내 표시들은 최소한의 접촉마저 막으려는 노력처럼 보였다. 국제 캠 마을 상권의 한 PC방을 경영하고 있는 G 씨는 “이러한 노력들에 도 불구하고 매출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PC방을 찾은 손님은 두세 명이 전부였다. G 씨는 “점심시간에 간단히 밥을 먹으면서

게임하려고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 임대료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규모가 큰 PC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당시 G 씨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줄이고자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결산에 따른